

Dong Hyek Lim

Piano Recital

CREEDIA MUSIC & ARTISTS

the saddler's spirit



Dong Hyek Lim Piano Recital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2020년 11월 2일 (월) 오후 8시

2020년 11월 6일 (금)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8PM Monday, November 2, 2020

8PM Friday, November 6, 2020

Lotte Concert Hall

피아노, 임동혁

Dong Hyek Lim, Pianist

주최 **CREZIA MUSIC & ARTISTS**

후원  **WARNER
CLASSICS**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2
Symphonic Dances



Dong Hyeok Lim

- ★ 임동혁 최초의 **협주곡** 앨범
- ★ 임동혁 최초의 **아르헤리치** 협연 앨범
- ★ 임동혁 최초의 **라흐마니노프** 앨범



피아노 협주곡 2번

임동혁 피아노,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알렉산더 베데르니코프 지휘

교향적 무곡

임동혁 &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

슈만 1810-1856
독일

어린이 정경, Op. 15

18'

R. Schumann

Kinderszenen, Op. 15

- I. Von fremden Ländern und Menschen 미지의 나라들
- II. Kuriose Geschichte 신기한 이야기
- III. Haschemann 술래잡기
- IV. Bittendes Kind 보채는 어린이
- V. Glückes genug 완전한 만족
- VI. Wichtige Begebenheit 큰 사건
- VII. Traumerei 꿈
- VIII. Am Kamin 난롯가에서
- IX. Ritter vom Steckenpferd 목마의 기사
- X. Fast zu Ernst 약이 올라서
- XI. Fürchtenmachen 거짓말
- XII. Kind im Einschlummern 아이는 잠들고
- XIII. Der Dichter spricht 시인이 말하길

베토벤 1770-1827
독일

피아노 소나타 제 14번 올림다단조, Op. 27 No. 2 ‘월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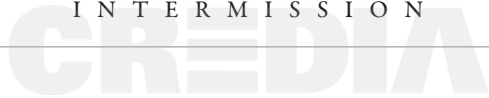
18'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14 in c# minor, Op. 27 No. 2 ‘Moonlight’

- I. Adagio sostenuto 느리게, 음의 길이를 충분히 끌어서
- II. Allegretto - Trio 조금 빠르게 - 트리오
- III. Presto agitato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I N T E R M I S S I O N



베토벤 1770-1827
독일

피아노 소나타 제 23번 바단조, Op. 57 ‘열정’

23'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23 in f minor, Op. 57 ‘Appassionata’

- I. Allegro assai 매우 빠르게
- II. Andante con moto 느리게, 그러나 활기 있게
- III. Allegro ma non troppo - Prest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아니하게 - 매우 빠르게

베토벤 1770-1827
독일

피아노 소나타 제 30번 마장조, Op. 109

18'

L. v. Beetho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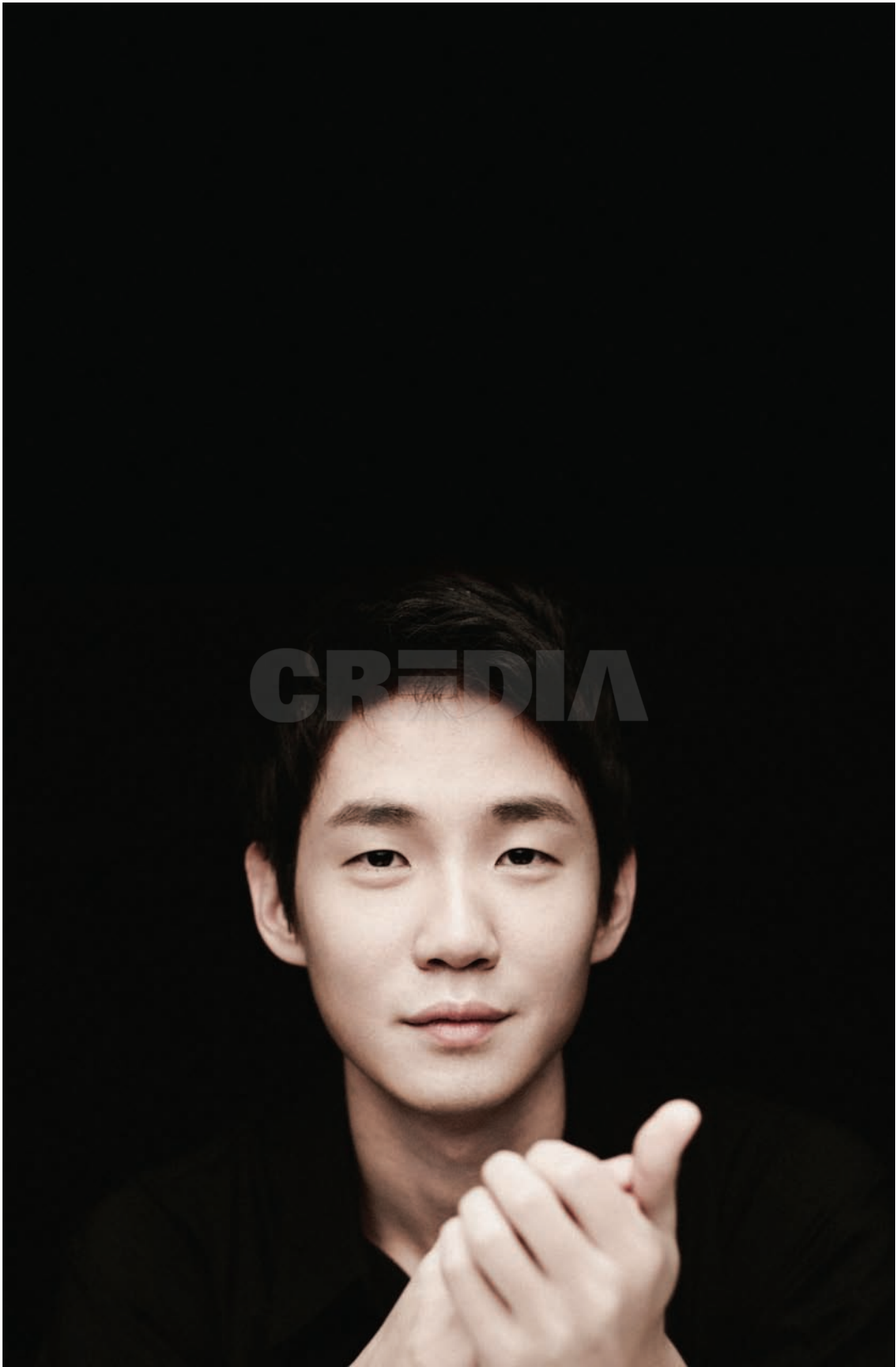
Piano Sonata No. 30 in E Major, Op. 109

- I. Vivace ma non troppo - Adagio espressiv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아니하게 - 느리고 감정을 살려서
- II. Prestissimo 아주 빠르게
- III. Andante molto cantabile ed espressivo 노래하듯이, 마음 속 깊이 감정을 가지고

· 11월 6일 공연 중 영상 제작을 위한 녹음/녹화가 이루어집니다. 관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로베르트 슈만
어린이 정경, Op. 15

Robert Schumann
Kinderszenen, Op. 15

로베르트 슈만(1810-56)에게 음악은 자신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렇기에 젊은 시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스승의 딸 클라라를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음악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20대였던 1830년대에 짧은 길이의 소품, 즉 ‘성격소곡’(Character piece)으로 당시의 순간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그렸다. 그래서 아델라이드 드 플라스(Adélaïde de Placé)는 슈만을 “소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시인”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첫 곡 <어린이 정경>(1838~39)도 이러한 성격소곡의 모음이다. 언제나 클라라를 염두에 두고 피아노곡을 작곡했던 슈만은 1838년 3월 17일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곡을 언급했다. “진정으로 어린아이의 웃을 입은 기분으로 30곡의 귀여운 소품을 작곡했어. 여기서 열두 곡 정도를 골라 <어린이 정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당신은 이 곡을 즐겁게 연주할 수 있을 거야.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편지의 언급과 같이 <어린이 정경>은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작곡가의 다양한 심상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런데 슈만은 상반된 사고의 혼돈 속에 있었던 탓인지, 한 작품을 구성하는 성격소곡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보인다. 그는 이러한 성격을 가상의 인물들, 즉 진지하고 내성적인 ‘오이제비우스’(Eusebius)와 밝고 외향적인 ‘플로레스탄’(Florestan), 그리고 중립적이고 현명한 ‘거장 라로’(Maestro Raro)로 정리했다. <어린이 정경>을 들으며 각 곡이 어떠한 인물에 가까운지 생각해보는 것도 슈만의 음악을 감상하는 재미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일곱 번째 곡 ‘트로이메라이’(꿈)는 오이제비우스적인 작품이다.

그런데 열두 곡을 골랐다는 앞의 편지와는 달리, <어린이 정경>은 열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인이 말하길’이라는 마지막 곡은 1839년에 추가된 것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음악의 시인’ 슈만 자신의 모습이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14번 올림다단조,
Op. 27 No. 2 ‘월광’

Ludwig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14 in c# minor,
Op. 27 No. 2 ‘Moonlight’

18세기 중반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고전음악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이라는 거인에 의해 결실을 보았다. 특히 그의 교향곡을 비롯한 여러 양식들이 완성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후배들에게 절대적인 모범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피아노 소나타는 예외로 보인다. 베토벤의 음악 인생 전반에 걸쳐 작곡된 소나타들은 20대 후반에 이미 고전 양식에서 이탈하고 있다. <소나타 8번 ‘비창’>(1797-98)에서 베토벤 스타일의 서정미를 선보인 그는, ‘작품번호 27’을 부여받은 두 개의 소나타(1801)에는 ‘환상곡처럼’(Quasi una fantasia)이라

는 도발적인 표기를 하기에 이른다. 이 두 작품은 고의로 소나타를 거꾸로 쓴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즉, 1악장에 사용해야 할 소나타 형식을 마지막 악장에 배치하고, 첫 악장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작곡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소나타 중 두 번째 작품이 오늘 연주될 <소나타 14번 ‘월광’>이다. 이 곡은 심지어 13번보다도 더욱 파격적인데, 1악장 없이 느린 악장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월광 소나타>는 호평을 받고 인기를 얻었다. 1802년 3월에 출판되었을 때, ‘일반음악신문’(Allgemeine Musikalische Zeitung)은 “마음속 깊이 받은 감동이 한꺼번에 솟아나는 심상은 마치 대리석으로 새긴 듯하다. 이 내면적인 음악을 마음으로 듣는다면, 첫 아다지오에 사로잡혀 점차 고조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평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소나타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베토벤이 짜증을 낼 정도로 오랫동안 항간에 회자되었다. ‘월광’이라는 제목은 1832년에 시인 루트비히 렐슈타프(Ludwig Rellstab)가 1악장을 “루체른 호수에 달빛이 비치는 물결 사이로 떠다니는 작은 배”라고 비유한 이후 불리게 되었다.

이 곡의 헌정자는 귀치아르디 백작의 딸인 줄리에타(Giulietta Guicciardi)이다. 베토벤으로부터 피아노를 배웠던 14세 연하의 줄리에타는 베토벤이 1812년에 쓴 ‘불멸의 연인’이라고 생각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이 둘은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했다. 1801년 11월 16일 친구인 프란츠 베겔러(Franz Wegeler)에게 보낸 편지에 당시의 심정이 고스란히 적혀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며, 나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 처음으로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본래 <월광 소나타>를 헌정하고자 했던 사람은 리히노프스키 백작의 딸인 헨리에테(Henriette Lichnowsky)였지만, 완성 후에 줄리에타로 바꾼 것은 당시에 그를 지배했던 애정의 마음이 이 곡에 깊이 녹아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줄리에타는 1803년 11월에 갈렌베르크 백작과 결혼하여 본국인 이탈리아로 훌연히 떠나고 말았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23번 바단조,
Op. 57 ‘열정’

Ludwig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23 in f minor,
Op. 57 ‘Appassionata’

베토벤의 제자인 페르디난트 리스(Ferdinand Ries)는 <열정 소나타>에 얽힌 일화를 이렇게 기록했다. 베토벤이 빈 근교의 되블링(Döbling)에서 살았을 때 어느 날, 함께 산책 중에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때 베토벤은 입으로 뭔가를 계속 웅얼거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8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집에 도착하고서, 베토벤은 그날 예정되어 있던 리스의 레슨을 취소하고 산책 중에 얻은 악상을 기초로 밤새 열심히 피아노를 연주했다. 이 곡은 ‘열정’의 마지막 악장이었다. 이 일화에서처럼 베토벤이 되블링에 살았던 1803~04년에 <열정 소나타>가 구체적으로 구상되었다. 그리고 베토벤의 제자이자 비서였던 안톤 신틀러(Anton Schindler)에 의하면, 베토벤은 1806년 여름에 브룬스비크 백작의 저택에서 이 곡을 단숨에 써내려 갔다. 출판은 1807년 2월에 빈의 예술공예사에서 이루어졌으며, 브룬스비크 백작에게 헌정되었다. ‘열정’이

라는 이름은 1838년에 연탄곡으로 편곡되어 함부르크에서 출판될 때 붙여졌으며, 이후에 원곡도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베토벤은 자신의 이전 작품에 불만을 느끼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했었는데, 이 소나타는 그 이상에 한 걸음 다가간 작품이다. 최상의 기교와 풍부한 악상, 빠른 전조와 폭넓은 다이내믹, 자주 변하는 전개 속도와 매우 극적인 긴장과 이완 등, 감상자에게 큰 충격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갑자기 솟구치는 열정, 억제할 수 없는 열망, 엄숙하면서도 진지한 고뇌, 그리고 그 사이에 비추는 사랑의 희망 등 다양한 모습의 인간적 고뇌가 엮여 있다. 시인 로맹 롤랑이 말했던 “열정적인 마음, 단단한 턱과 위를 노려 보는 날카로운 눈빛, 고뇌로 연단된 불굴의 기백이 그대로 전달되는 작품”이라는 표현에 깊이 공감된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30번 마장조,
Op. 109

Ludwig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30 in E Major,
Op. 109

오늘의 마지막 곡 <소나타 30번>은 앞의 두 곡과는 차이가 있는 1820년에 완성되었다. 그해 여름에 베토벤이 빈의 남서쪽에 위치한 뫼들링(Mödling)에 머물렀을 때 많은 부분을 작곡했으며, 9월 20일 베를린의 술레징거 사에 보낸 편지에서 “세 곡의 소나타가 곧 완성될 것입니다. 첫 곡은 조금만 손보면 되고, 다른 두 곡도 빨리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쓴 것으로 보아, 빈으로 돌아와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1821년 11월에 술레징거에서 출판되었지만, 베토벤의 건강이 좋지 않아 검토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류가 많았다.

그런데 <소나타 30번>은 전작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서정적이라 하더라도 과거 환상곡 풍의 소나타들과는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다. 마치 고단했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정신적인 영역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다. 헌정자 막시밀리아네 브렌타노(Maximiliane Brentano)를 보며, 그녀의 어머니이자 ‘불멸의 연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안토니 브렌타노(Antonic Brentano)에 대한 사랑을 체념하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소나타 30번>은 여느 소나타와 달리, 1악장이 가볍고 짧으며, 2악장은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마치 전주곡과 간주곡이 연이어 연주되는 것 같다. 반면에 3악장은 길이가 길고 ‘노래하듯이, 마음속 깊이 감정을 가지고’라는 독특하고 상세한 지시어를 가지고 있어, 베토벤이 이 악장을 통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가사가 없어 그 의미를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가만히 선율에 귀를 기울이면 음률을 타고 베토벤의 사랑과 삶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글 |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피아니스트
임동혁

Pianist
Dong Hyek Lim

PREEDIA

임동혁은 7세의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10세 때 러시아로 이주,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서 수학하였다. 임동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6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부터였다. 형인 임동민은 1위에, 임동혁은 2위에 나란히 입상하면서 두 형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스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이듬해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 상, 오케스트라 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 상, 파리음악원 학생 상, 마담 가비파스키에 상 등 5개 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편파 판정에 불복, 수상을 거부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클래식계에 핫 이슈를 몰고 왔지만, 2005년 제 15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3위를 수상하며 그에 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또한 2007년 6월, 제13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분에서 1위 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누구보다 임동혁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몇몇 음악 페스티벌에서 임동혁의 인상적인 연주를 지켜본 아르헤리치는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에 임동혁을 초청하였으며, EMI클래식의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그를 적극 추천하였다. EMI클래식은 아르헤리치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의 데뷔 음반을 출시하였고, 임동혁은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하며 EMI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후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의 4명의 연주자 중 임동혁만이 유일하게 2집을 출시하였으며, 이 음반 역시 프랑스의 ‘쇼크 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2008년에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3집을 발표했고 이후 2015년 11월에는 워너 인터내셔널 클래식 레이블로 쇼팽 프렐류드 전곡 음반이 발매되어 그라모폰과 BBC매거진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동혁은 뉴욕 링컨 센터,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살 플레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홀 등 전세계 주요 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또한 베르비에 페스티벌, 쇼팽 페스티벌, 루가노 페스티벌 등 다수의 페스티벌에서 연주했다. 샤를 뒤투아가 지휘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유리 테미르카노프 지휘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홀라벡 지휘의 BBC 심포니, 마이클 틸슨 토마스 지휘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19/20 시즌에는 함부르크에서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듀오 무대를 가졌고,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과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녹음한 라흐마니노프 심포닉 댄스가 수록된 그의 5집 음반이 지난해 5월, 워너 클래식스에서 발매되었다.

임동혁은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 입학하여 레프 나우모프를 사사하였고, 그는 “임동혁은 황금손을 가졌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 후, 하노버 국립 음대에서 아리 바르디 사사, 그리고 줄리어드 음대에서 엠마누엘 엑스를 사사하였다. 임동혁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Acclaimed by audiences, critics and fellow musicians, Dong Hyek Lim is regarded as one of the finest pianists of his generation. Since winning the second prize at the Chopin Competition for Young Pianists in Moscow as the youngest participant of that year, he captured international attention.

Lim's performances at the Small and Great Halls of the Moscow State Conservatory, Salle Pleyel and Salle Cortot in Paris, the Lazienki Palace in Warsaw, the Konzerthaus in Berlin and with Martha Argerich at the Philharmonic Hall in Beppu, Japan, have won great acclaim. Also, Lim has appeared in many renowned festivals including Verbier in Switzerland, Klavier-Festival Ruhr in Germany, the 57th International Chopin Festival in Poland, La Roque d'Antheron, Montpellier Radio France and Piano aux Jacobins Festivals in France. He has performed with world's major orchestra such as NHK Symphony Orchestra,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St. Petersburg Philharmonic Orchestra, New Japan Philharmonic under conductors Charles Dutoit, Myung-Whun Chung, Yuri Temirkanov.

In 2001, Lim became the youngest pianist ever to sign a recording contract with EMI Classics and received the Diapason d'Or award in France for his debut album under the "Martha Argerich Presents" series. His second recording on EMI was awarded the Choc Prize by Le Monde de la Musique. Also, Lim achieved great success in his third album, playing Goldberg Variations by J.S Bach. His fourth album 'Chopin 24 preludes', with Warner, has been acclaimed by Gramophone and BBC Magazine.

Lim has won top prizes at various competitions. In 2000, Lim took the fifth prize at the International Busoni Piano Competition in Italy, which later became known as 'Busoni Shock' (the entire juries were replaced for the next year's competition). He went on to win the second prize at the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Japan later that year. In December 2001, not only did he become the youngest winner of the Premier Grand Prix in the history of the Marguerite Long-Jacques Thibaud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Paris, but also he won five other special awards. In October 2005, Lim participated in the 15th International Frederick Chopin Piano Competition in Warsaw 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 took the third prize; tied with his elder brother Dong-Min Lim (no second prize was awarded). In June 2007, Lim participated in the 13th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in Moscow, shared the fourth prize with Sergei Sobolev (no first prize was awarded).

In the 2019/20 season, he released his fifth recording on Warner of Rachmaninoff Symphonic Dances with Martha Argerich and Piano Concerto No.2 with BBC Symphony Orchestra.

Born in Seoul Korea in 1984, he began his musical training at the age of seven and moved to Russia at age ten to become a pupil at the Moscow Central Music School. He graduated in 1998 and continued studies at the Moscow State Tchaikovsky Conservatory with Professor Lev Naumov. Lim also studied in Germany with Arie Vardi at the Hochschule fur Musik in Hannover and the US with Emanuel Ax at the Juilliard School. He is now based in Berlin.



© Sangwook Lee

Interview with Dong Hyek Lim

절제된 감성으로 더욱 ‘베토벤답게’

‘나보다 베토벤’이 먼저, 깊은 통찰력으로 그에게 더 가까이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베토벤을 꽤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에 2년 주기가 알맞게 느껴진다는 그는, 지난 2018년 슈베르트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채웠고, 2016년에는 쇼팽 음반을 발매한 것을 기념하며 쇼팽 레퍼토리로 리사이틀을 가졌다. 낭만시대 작품들로 주요 활동의 흐름을 이어오던 그가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베토벤 소나타를 무대에 올린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과 함께 선택된 베토벤 작품은 대중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제23번 ‘열정’>, <제30번>이다.

Q. 그동안 낭만 레퍼토리를 주로 다뤄오셨기에 베토벤 프로그램으로 열게 될 이번 리사이틀이 다소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번 공연을 앞두고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이번 베토벤 프로그램은 매우 힘에 부친 도전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향 자체가 조금은 더 진중해지고 차분해졌으며, 제 기분에 휘둘리는 연주를 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욱 베토벤에 가까워졌음을 느끼곤 하죠. 제가 가진 성향과 본질대로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면서 스스로 만족할만한 베토벤 연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뇌로 인해 얻어지는 탈피와도 같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번 연주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Q. 베토벤 소나타 중에서도 비교적 낭만성이 돋보이는 세 곡을 선정하셨어요. <월광>, <열정>, <제30번> 소나타를 고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슈만의 <어린이 정경>을 첫 순서에 배치하신 것도 특별한데요.

슈만의 <어린이 정경>을 첫 순서로 넣은 것은 지극히 피아니스트한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저처럼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메인 프로그램을 연주하기 전에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하죠. 본격적으로 베토벤 음악에 들어가기 전, 준비단계로 <어린이 정경>이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베토벤 소나타의 연주 순서는 작품번호 순서대로 정했어요. 끝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30번 소나타> 이후에 <‘열정’ 소나타>를 연주하는 것이 더 기괴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정’ 소나타>는 제가 어릴 적 많이 치던 곡이었죠.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곡을 연주하며 스스로 제 자신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한몫했습니다. 요즘은 이 소나타를 연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군요. 멋모르고 어린 패기로 쳤던 때가 그리워질 정도로 말이에요(웃음).

Q. 어떻게 하면 <‘열정’ 소나타>를 더욱 베토벤답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베토벤 음악을 다룰 때 ‘절제’와 ‘구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감성팔이’를 하는 것이 아닌 곡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야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면서도 ‘음악적으로’ 처야 하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저 딱딱한 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집시음악처럼 질이 떨어지는 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베토벤의 음악은 그런 감성에만 치우친, 수준이 낮은 연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Q. <제30번 소나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베토벤의 음악 세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후기로 갈수록 절제된(disciplined) 요소와 낭만적인 요소가 아주 밸런스 있게 작곡되었다는 걸 느껴요. 그렇기에 연주를 잘 하기가 더 까다롭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하죠.

Q. 베토벤의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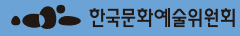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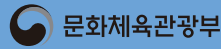
글쎄요. 베토벤이 어떤 생각으로 작품들을 썼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보면,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견디며 작곡을 했죠. <‘합창’ 교향곡>이 그 정점을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매우, 그리고 자주 음울했어요. 듣기만 해도 힘듦이 느껴지는 곡들이 많습디다만 그 안에는 언제나 희망적인 요소가 들어 있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삶에서 위로가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Q. 마지막으로 공연에 함께 자리해 주실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주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연에 오셔서 저와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김소연(기자)
월간 피아노음악 9월호 발췌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응원합니다



소중한 일상 소중한 문화 티켓

CREDIA



8개 주요 예매처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공연 티켓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최대 3만 2천원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안전한 공연 관람 약속하고, 소중한 일상, 소중한 문화티켓 받아 가세요

HERA HYESANG PARK RECITAL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I AM

HERA

I A M H E R A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 음반
전세계 발매기념

파셀 음악은 잠시동안
글록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 '잔인한 순간'
페르골레시 <마님이 된 하녀> 중 '화를 잘 내는 나의 주인님'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밤금 그 노래 소리'
헨델 <체사레> 중 '저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몽삼바에 다섯개의 흑인노래
최진 시간에 기대어
김주원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2020.11.20 FRI 8 PM 롯데콘서트홀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DONG-MIN LIM & DONG HYEK LIM DUO RECITAL

2021.3.3 WED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영화 같은 순간, 마법 같은 음악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 2020

crema

RICHARD YONGJAE O'NEILL WINTER CONCERT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 조윤성 피아노 트리오 |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2020.12.26 SAT 7 PM | 롯데콘서트홀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매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